

# ‘더 알아보기’ 찾아보기

## 제1장 형태론

### 1. 품사

의존 명사의 종류 / p. 015

‘우리’의 쓰임 / p. 015

미지칭과 부정칭의 구별법 / p. 016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법 / p. 017

‘있다’와 ‘없다’의 품사 / p. 017

보조용언의 품사 / p. 018

전성 어미 vs 파생 접미사 / p. 019

어미 vs 의존 명사 / p. 020

어간의 형태가 변해도 규칙? / p. 021

‘르’로 끝나는 어간의 ‘러’ 불규칙 vs ‘르’ 불규칙 vs ‘ㄹ’ 탈락 / p. 022

어간 불규칙 vs 어미 불규칙 vs 어간&어미 불규칙 파악하기 / p. 022

관형사와 형용사의 차이 / p. 024

형용사 ‘다르다’ vs 관형사 ‘다른’ / p. 024

수사 vs 수 관형사 / p. 024

대명사 vs 지시 관형사 / p. 024

체언 수식 부사 / p. 025

접속 부사가 왜 문장 부사인가요? / p. 025

관형어 vs 관형사 vs 관형사형 어미 vs 관형격 조사 / p. 027

조사 ‘같이’ vs 부사 ‘같이’ / p. 027

주격조사 ‘에서’ vs 부사격조사 ‘에서’ / p. 028

접속 조사 ‘와(과)’ vs 부사격 조사 ‘와(과)’ / p. 029

의존 명사 vs 조사 / p. 029

### 2. 단어의 형성

어근(語根) vs 어간(語幹) / p. 052

품사를 바꾸는 접사(생산적인 접사에만 한하여) / p. 053

피·사동접미사가 지배적 접사에 속하는 이유는? / p. 053

품사 변화와 문장 구조 변화를 모두 겪은 단어는? / p. 054

어근 ‘군’ vs 접두사 ‘군-’ / p. 056

어근 ‘이’ vs 접미사 ‘-이’ / p. 056

보조사 ‘들’ vs 접사 ‘-들’ / p. 056

생소한 접사는 왜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 걸까? / p. 057

파생명사 / p. 057

동사 파생 접미사는 ‘-하-’인가요 ‘-하다’인가요? / p. 057

합성이나 파생을 두 번 이상 겪는 단어들 / p. 062

### 3. 형태소와 단어

형태소 구분이 너무 어려워요! / p. 084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것은? / p. 084

접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형식 형태소인가요? / p. 084

## 제2장 통사론

### 1. 문장 성분

명사절이란? / p. 098

서술절이란? / p. 099

부사절이란? / p. 100

관형사절이란? / p. 100

### 2. 문장의 확장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의 '-이'는 무엇일까? / p. 121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vs 부사절을 안은 문장 / p. 124

### 3. 종결 표현

수사 의문문은 왜 의문문에 속하나요? / p. 141

형용사의 명령문과 청유문 / p. 143

### 4. 높임 표현

하오체의 청자 / p. 152

하계체와 해체의 구분 / p. 153

상대 높임의 구별(상대 높임 표를 다 외워야 하나요?) / p. 153

있으시다 vs 계시다 / p. 154

높임법을 구별하는 방법 / p. 155

### 5. 시제와 상

형용사 어간 + -(으)ㄴ / p. 168

'-던'의 형태소 분석 / p. 170

'잘생기다'의 품사는? / p. 172

### 6. 피동과 사동

자동사에서 파생된 피동사? / p. 189

'-어지다'의 정체는? / p. 189

'당하다', '받다' / p. 190

대응되는 피동문이 없는 능동문 / p. 191

능동문 vs 주동문 / p. 193

간접 사동으로만 해석되는 파생적 사동문 / p. 197

피동과 사동 표현이 동시에 들어있는 문장 / p. 200

### 7. 부정 표현

마라 vs 말아라 / p. 211

## 제3장 음운론

### 1. 음운과 음운 체계

음운 vs 음성 / p. 220

자음 vs 장애음 / p. 221

조음 방법 vs 조음 위치 / p. 224

'외', '위'는 왜 단모음인가요? / p. 227

'의'는 'ㅡ'가 반모음인가요, 'ㅣ'가 반모음인가요? / p. 228

'민주주의의 의의'는 몇 가지로 발음할 수 있을까? / p. 229

### 3. 음운의 변동과 표준 발음법

받침 'ㅎ'의 발음 / p. 245

생산량 [생산냥]? [생살량]? / p. 247

완전 동화 vs 불완전 동화 / p. 247

순행 동화 vs 역행 동화 vs 상호 동화 / p. 247

'ㅣ' 모음 순행 동화는 첨가에 해당된다? / p. 249

'닭[닥]' vs '닭[닥]' / p. 251

헛갈리는 겹받침의 표준 발음법 / p. 251

'가서'의 어미가 '-아서'인지 '-서'인지 모르겠어요 / p. 254

모음의 축약은 교체에 해당된다? / p. 256

'꽃히다'의 음운 변동 / p. 263

'맛있다, 맛없다, 멋있다, 멋없다'의 발음 / p. 264

## 제4장 국어사

### 1. 훈민정음과 중세국어의 음운론

‘ㅎ’의 발음 / p. 300

‘ㄷ, ㅌ’의 발음 / p. 300

모음의 발음 / p. 301

‘빙’의 발음 / p. 303

중세국어발음 들어보기 / p. 304

8중성법의 예외 문헌 / p. 304

/ㅅ/의 음가 / p. 306

왜 ‘조치’가 아니라 ‘조티’인가요? / p. 310

### 2. 중세국어의 형태론

무정 체언, 유정 체언 / p. 321

중세 국어의 주요 조사 / p. 325

‘ㅎ’ 보유 체언과 조사의 결합 / p. 326

‘나무’뒤에 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하나요?

/ p. 327

명사 파생 접미사 ‘-(으/으)ㅁ’ vs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음’ / p. 332

### 3. 중세국어의 통사론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다른 방법 / p. 351

선어말 어미의 결합 순서 / p. 352

### 4. 근대국어

‘마디’와 ‘느티나무’ 등은 왜 ‘마지’와 ‘느치나무’가 아닌가요? / p. 372

## 제5장 의미론

### 1. 의미 관계

상하 관계와 부분 관계의 차이점 / p. 385

## 제6장 국어 어문 규정

### 1.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만하다’, ‘듯하다’의 띄어쓰기 / p. 444

## 제7장 심화 개념

### 1. 형태론 심화 개념

유일 형태소 / p. 478

체언 수식 부사 / p. 481

## 제1장

# 형태론

1. 품사
2. 단어의 형성
3. 형태소와 단어

# 1 품사

## 1.1 체언 - 명사, 대명사, 수사

(1) 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예** 사람, 꽃, 나무

① '자립성' 유무에 따라

㉠ 자립 명사 -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명사들

㉡ 의존 명사 - 꾸밈을 받아야지만 사용될 수 있는 명사

- [-르, -니(관형어) + 띄어 쓰인 '수, 것, 만큼, 따름, 뿐, 대로, 지, 채' 등
- 개, 그루, 마리, 명 등 단위를 나타내는 말

**예** 나는 할수 있다.

영미가 가져온것은 책이다.

난 할만큼 했다.

나는 그저 기쁨따름이다.

그는 말만 그렇게 할뿐 실천하지 않는다.

내가 한대로 따라 해 보라.

그가 떠난지 10년이 넘었다.

옷을 입은채로 물에 들어가다.

사과 두개, 토끼 세마리 (단위)

### #1 적용문제 - 2016학년도(2015년) 9월 평가원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국어에서는 의존 명사가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수효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립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사람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수도 있다.

- 의존 명사 : 그 아이는 올해 아홉 살이다.
- 자립 명사 : 그는 사람을 부리는 재주가 있다.
-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 : 친구 다섯 사람과 함께 도서관에 갔다.

- ① 이 글에는 여러 군데 잘못이 있다.
- ② 앉은자리에서 밥 두 그릇을 다 먹었다.
- ③ 시장에서 수박 세 덩어리를 사 가지고 왔다.
- ④ 할아버지께서는 밤을 몇 순가락 겨우 뜨셨다.
- ⑤ 나는 서너 발자국 뒤로 물러서다가 냇다 도망쳤다.

## 더 알아보기

### 의존 명사의 종류

의존 명사 뒤에 어떤 조사가 결합되는지에 따라 보편성, 주어성, 서술어성, 부사어성 의존 명사로 나눌 수 있다. 보편성 의존 명사는 어떤 격조사와도 잘 어울리고, 주어성 의존 명사는 주격 조사 '이/가'와, 서술어성 의존 명사는 서술격 조사 '이다'와, 부사어성 의존 명사는 부사격 조사와 결합한다. 물론 조사는 생략될 수 있다.

- 보편성 의존 명사 **㉠** 나에게 먹을 것이 없다. 나는 먹을 것을 좋아한다. 이것은 먹을 것이다.
- 주어성 의존 명사 **㉡** 어쩔 수(가) 없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니?
- 서술어성 의존 명사 **㉢** 최선을 다할 따름이다.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 부사어성 의존 명사 **㉣**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는 그가 공부를 잘하는 줄로만 알았다.

(2) 대명사: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

- ┌ 인칭 대명사
- ├ 지시 대명사
- └ 미지칭, 부정칭 대명사

#### ① 인칭 대명사

- ㉠ 1인칭: 나, 저, 우리, 저희

## 더 알아보기

### 우리'의 쓰임

'우리'는 일반적으로 화자와 청자를 포함하지만,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A, B, C가 대화 중)

A: 애들이 우리 영화 보러 갈래?

B: 좋아

C: 나는 숙제가 있어서…….

A: 그래? 그럼 우리끼리 갈게.

- ㉡ 2인칭: 너, 너희, 자네, 당신, 그대, 귀하

- ㉢ 3인칭

- ┌ 이이, 그이, 저이, 이분, 저분, 그분 ……
- └ 재귀 대명사: 저, 자기, 당신, 저희

**재귀 대명사란?** 한 문장 안에서 나온 체언을 되풀이하지 않고 다시 받을 때 사용하는 대명사

**㉠** 철수는 그가 천재라고 생각한다(대명사) / 철수는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한다.(재귀 대명사)

**㉡** 그는 저도 모르게 울음을 터트렸다. / 아이들은 어려서 저희밖에 모른다.

**㉢** 이 책은 아버지님 당신께서 생전에 아끼시던 것이다. ★★

54. '문을 닫고 들어와라.'에서 '닫고'는 [규칙/불규칙] 활용을 한다.
55. '뚝다'는 [어간/어미/어간&어미]이(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56. '물다(間)'는 [어간/어미/어간&어미]이(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57. '빠르다'는 [어간/어미/어간&어미]이(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58. '푸르다'는 [어간/어미/어간&어미]이(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59. '하다'는 [어간/어미/어간&어미]이(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60. '빨갳다'는 [어간/어미/어간&어미]이(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61. '있다'는 [어간/어미/어간&어미]이(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62. '푸다'는 [어간/어미/어간&어미]이(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63. '하얗다'는 [어간/어미/어간&어미]이(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64. '영희와 철수는 대학에 합격했다.'의 '와'는 [접속조사/부사격조사]이다.
65. '나는 수박과 참외를 좋아한다.'의 '과'는 [접속조사/부사격조사]이다.
66. '수박은 참외와 완전히 다른 과일이다.'의 '와'는 [접속조사/부사격조사]이다.
67. '이 나무는 침엽수가 아니다'의 '가'는 \_\_\_\_\_ 격 조사이다.
68.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다.'의 '에서'는 \_\_\_\_\_ 격 조사이다.
69. '학교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다.'에서 '에서'는 \_\_\_\_\_ 격 조사이다.
70. '거기에 연필 한 자루가 있을 거야.'에서 '한'의 품사는? \_\_\_\_\_
71. '그 문제를 틀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에서 '한두'의 품사는? \_\_\_\_\_
72. '밭에서 농부 한둘이 일을 하고 있다.'에서 '한둘'의 품사는? \_\_\_\_\_
73.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에서 '대로'의 품사는? \_\_\_\_\_
74. '영미야 시장에 가서 고등어 한 손 사오너라.'에서 '손'의 품사는? \_\_\_\_\_
75. '개가 벌써 도착했을 리 없다.'에서 '리'의 품사는? \_\_\_\_\_
76.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의 '든지'는 조사이다. [O/X]
77. '그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다.'에서 '그'의 품사는? \_\_\_\_\_
78. '그는 멋쩍게 웃음으로써 답변을 회피했다.'에서 '그'의 품사는? \_\_\_\_\_
79. '글씨가 크지 않아서 잘 안 보인다. / 나무가 제대로 크지 못해서 걱정이다.' 각각의 품사는? \_\_\_\_\_, \_\_\_\_\_
80. '금고 가득히 금괴가 쌓이다.'에서 '가득히'의 품사는? \_\_\_\_\_
81. '꿀을 꾸다 / 그는 자기 소개서에 '초상화를 잘 그림'이라고 썼다.' 에서 각각의 품사는? \_\_\_\_\_, \_\_\_\_\_ ★
82.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 영미는 영희와 다르게 예쁘다.' 각각의 품사는? \_\_\_\_\_, \_\_\_\_\_ ★
83. '나는 버스를 타려고 달리기 시작했다'에서 '달리기'의 품사는? \_\_\_\_\_
84. '나는 보다 열심히 공부하겠다.'에서 '보다'의 품사는? \_\_\_\_\_ ★
85. '아기는 아버지를 빼다 박은 듯 닮았다.'에서 '듯'의 품사는? \_\_\_\_\_ ★
86.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일 뿐이다.'에서 '만큼'의 품사는?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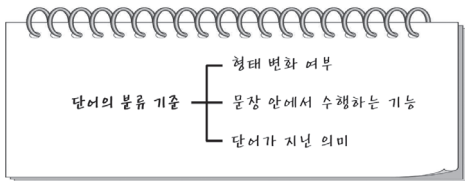
87. '나는 비교적 차분하다.'; '단순 연구 말고 비교적 연구를 해 보아라'에서 각각의 품사는? \_\_\_\_\_, \_\_\_\_\_ ★
88.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에서 각각의 품사는? \_\_\_\_\_, \_\_\_\_\_ ★
89. '나는 사과 두 개를 엄마에게 드렸다'에서 '두'의 품사는? \_\_\_\_\_
90. '나는 좋은 친구가 있어. / 나는 내일은 그냥 집에 있으려고.'에서 각각의 품사는? \_\_\_\_\_, \_\_\_\_\_ ★
91. '그는 겨우 책을 선물해 주었다.'에서 '겨우'의 품사는? \_\_\_\_\_
92.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다.'에서 '만큼'의 품사는? \_\_\_\_\_
93. '늙다', '행복하다' 각각의 품사는? \_\_\_\_\_, \_\_\_\_\_
94. '우리 가게는 둘째 주 일요일에 쉰다.'에서 '둘째'의 품사는? \_\_\_\_\_
95. '우리에게 첫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에서 '첫째'의 품사는? \_\_\_\_\_
96.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프다./나는 잘못을 저질렀다.' 각각의 품사는? \_\_\_\_\_, \_\_\_\_\_
97. '친구들과 놀았던 장소, 친구들과 찍은 사진' 각각의 품사는? \_\_\_\_\_, \_\_\_\_\_
98. '아무도 없는 놀이터'에서 '없는'의 품사는? \_\_\_\_\_
99. '과일가게에는 수박, 참외, 토마토, 사과 등이 아주 많다.'의 '들'은 명사이다.[O/X]
100. '학생들이 많다.'의 '들'은 명사이다. [O/X]
101. '여기 다섯 사람이 있다.'에서 '다섯'의 품사는? \_\_\_\_\_
102.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라. / 현 옷 / 외탄 길 / 긴 세월 / 갖은 양념' 중 품사가 다른 하나는? \_\_\_\_\_
103. '이 학교는 내가 다닐 학교이다'에서 '이'의 품사는? \_\_\_\_\_
104. '친구와 같이 영화관에 갔다. / 아버지는 항상 소같이 일만 하신다.' 각각의 품사는? \_\_\_\_\_, \_\_\_\_\_
105. '사촌동생의 키가 몰라보게 꼈다.'에서 '꼈다'의 품사는? \_\_\_\_\_
106. '그 가수는 현란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에서 '춤'의 품사는? \_\_\_\_\_
107. '나는 새 옷을 샀다.'에서 '새'의 품사는? \_\_\_\_\_
108. '나는 예쁜 옷을 샀다.'에서 '예쁜'의 품사는? \_\_\_\_\_
109.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자.'에서 '즐거웠던'의 품사는? \_\_\_\_\_
110. '옛 기억을 떠올려 보자.'에서 '옛'의 품사는? \_\_\_\_\_



2 실전 문제

해설 19p

1. 다음은 문법 수업의 내용을 정리한 학생의 노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년 11월 고1]



<보기>  
○ 우리도 두 팔을 넓게 벌려 원 하나를 이루었다.  
○ 동생이 나무로 된 탁자에 그린 꽃만 희미하다.

- ① '도'와 '만'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다.
- ② '이루었다'와 '그린'은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다.
- ③ '두'와 '하나'는 문장 안에서 수식의 기능을 하는 단어이다.
- ④ '나무'와 '꽃'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 ⑤ '넓게'와 '희미하다'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2. <보기>를 바탕으로 목적격 조사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0년 11월 고2]

<보기>  
목적어는 타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으로 '체언+목적격 조사(을/를)'의 형태로 성립된다.  
예) 나는 독서를 즐긴다. / 그는 책을 사랑한다.  
ㄱ. 그는 누굴 더 사랑할까  
ㄴ. 나는 사과를 좋아해. / 나는 사과를 좋아해.  
ㄷ. 나는 너만을 좋아해. / 나는 너를 좋아해.  
ㄹ. 나는 영수와 만났다. / 나는 영수를 만났다.  
ㅁ. 선생님께서 책을 열 권을 주셨다.

- ① ㄱ : 목적격 조사가 '르'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구나.
- ② ㄴ : 목적격 조사의 자리에 조사사 '는'이 쓰이기도 하는구나.
- ③ ㄷ : 체언과 목적격 조사 사이에 다른 조사사 '만'이 올 수도 있구나.
- ④ ㄹ : 부사격 조사 '와'를 목적격 조사로 바꾸어 쓰기도 하는구나.
- ⑤ ㅁ : 한 문장에서 목적격 조사가 두 번 나오더라도 이를 생략해서는 안 되겠구나.

3.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가 보조용언으로 사용된 것은? [2011년 6월 고2]

<보기>  
○ 본용언은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고, 보조용언은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예) 사람들이 모두 가 버렸다. : '버렸다'는 '가다'의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뜻을 보충함.

- ① 영화는 밥을 먼저 먹고 보자.
- ② 철수는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
- ③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놀고 왔다.
- ④ 힘이 드니 잠시 여기 있다 가자.
- ⑤ 봄에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고 싶다.

4.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용언'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3년 11월 고2]

<보기>  
ㄱ. 날씨가 덥다.  
ㄴ. 날씨가 더워 온다./날씨가 더워온다.  
ㄷ. 철수가 밥을 먹고 갔다./\*철수가 밥을 먹고갔다.  
ㄹ. 영화가 종이배를 접어 띄웠다.  
⇒ 영화가 종이배를 접었다. + 영화가 종이배를 띄웠다.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 ㄴ으로 볼 때, 한 용언이 홀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용언과 어울려 쓰이기도 하는군.
- ② ㄴ의 경우, 뒤의 용언이 앞의 용언의 의미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군.
- ③ ㄷ으로 볼 때, 문장 안에서 두 용언이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띄어 써야 하는군.
- ④ ㄴ과 ㄷ은 모두 ㄹ처럼 의미가 성립하는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겠군.
- ⑤ ㄴ~ㄷ으로 볼 때, 두 용언이 어울려 쓰일 경우 '-아/어', '-고'와 같은 어미로 연결되는군.

5.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년 9월 고2]

<보기>

**[선생님의 설명]**  
 보조사 '도'는 쓰임새와 의미가 다양해요. 체언뿐만 아니라 연결어미나 부사, 조사와도 결합할 수 있어요. 또 다양한 문장 성분 자리에 사용되어 '더함'이나 '동격'의 의미를 덧붙입니다. '놀라움의 감정'을 강조하기도 하고, '다른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요. 다음 수업 자료를 보면서 '도'의 다양한 쓰임새와 의미를 알아볼까요?

**[수업 자료]**  
 우리 가족들은 오랜만에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다. 나는 사촌 동생들과 저녁때까지 신나게 뛰어 놀고 내가 좋아하는 ㉠축구도 함께 했다. 주변이 점점 어두워져서 집에 들어왔더니 어머니께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다. ㉡평소에도 잘 먹지 않던 나물반찬이 많아 밥만 먹고 있었더니 할머니께서는 ㉢반찬도 먹으라며 나무라셨다. 저녁을 대충 먹고 사촌 동생들과 함께 고구마를 ㉣쥬아도 먹고 구워도 먹었다. 배가 부르자 피곤이 밀려와서 씻기는커녕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

- ① ㉠: 보조사 '도'는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군.
- ② ㉡: 보조사 '도'는 다른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군.
- ③ ㉢: 보조사 '도'는 놀라움의 감정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군.
- ④ ㉣: 보조사 '도'를 통해 두 가지 행위가 동등하게 일어남을 알 수 있군.
- ⑤ ㉤: 보조사 '도'를 통해 다른 일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군.

6.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년 11월 고2]

<보기>

**이1** **[의존명사]**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말.

**이2**  
**[1] [대명사]**  
 1)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2] [관형사]**  
 1)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 노력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한다.

**이3**  
**[1] [수사]**  
 1) 일에 일을 더한 수, 아라비아 숫자로는 '2', 로마 숫자는 'Ⅱ'로 쓴다.  
**[2] [관형사]**(일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1) 그 수량이 돌임을 나타내는 말.

- ① '저 모자를 쓴 이가 누구지?'의 '이'는 사람을 뜻하므로 '이1'의 용례가 되는군.
- ②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뜻풀이가 있으므로 '이2'는 다의어에 해당하는군.
- ③ '이2 [1] 1)'의 용례와 '이2 [2] 1)'의 용례를 통해 '이2'는 조사의 결합 가능 여부에 따라 품사를 구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이 킬로미터를 걸어라.'에서 '이'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이므로 '이3 [1] 1)'의 용례로 들 수 있군.
- ⑤ '이1', '이2', '이3'은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된 걸 보니 서로 동음이의 관계이군.

# 품사

## 1 연습 문제

1. 명사, 대명사, 수사
2. 자립 명사, 의존 명사
3. 관형어
4. 것
5. 그루
6. 2, 3
7. 1  
해설 주어는 '우리들이'로 1인칭이다. 참고로 여기서 '그 일'은 목적어이다. '우리들이 그 일을 알아서 할게.'이기 때문이다.
8. 2
9. 3
10. 3
11. 저
12. 미지칭, 부정칭
13. 양수사, 서수사, 고유어계, 한자어계
14. 수사, 수관형사
15. 타동사, 자동사
16. 을/를
17. 있고, 없다
18. 보조용언
19. 않다, 못하다
20. 활용, 어간
21. 예쁘-, 높-, 달리-
22. ㉠어미, ㉡어말어미, ㉢선어말어미,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시제, ㉧높임
23. 용언의 명사형, 파생명사
24. 용언의 명사형, 파생명사
25. 불규칙, 음운 규칙, 규칙
26. 푸르다
27. 르, 크르
28. 지시, 성상, 수
29. 없고, 있다는
30. 부사
31. 성분, 문장
32. 문장
33. 체언
34. 이다
35.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36. 되다, 아니다
37. 형태, 기능, 의미
38. 가변어, 불변어
39.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40.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41. O
42. 미지칭
43. 2
44. 보조용언
45. 본용언
46. 보조용언
47. 보조용언
48. 본용언
49. 보조용언
50. 보조용언
51. 보조용언
52. 어말, 전성
53. 어말, 연결
54. 규칙
55. 어간
56. 어간
57. 어간
58. 어미
59. 어미
60. 어간&어미
61. 어간
62. 어간
63. 어간&어미
64. 접속조사
65. 접속조사
66. 부사격조사
67. 보
68. 주
69. 부사
70. 관형사
71. 관형사
72. 수사
73. 명사
74. 명사
75. 명사  
해설 의존 명사이다.
76. X  
해설 어미이다.
77. 관형사
78. 대명사
79. 형용사, 동사
80. 부사
81. 명사, 동사
82. 관형사, 형용사
83. 동사
84. 부사
85. 명사
86. 명사
87. 부사, 관형사  
해설 '~적'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기능을 보고 품사를 결정한다. 앞의 '비교적'은 용언을 꾸며주므로 부사, 뒤의 '비교적'은 명사를 꾸며주므로 관형사이다.
88. 관형사, 명사  
해설 '~적'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기능을 보고 품사를 결정한다. 앞의 '역사적'은 명사를 꾸며주므로 관형사, 뒤의 '역사적'은 서술격 조사 '인'이 결합되었으므로 명사이다.
89. 관형사
90. 형용사, 동사
91. 부사
92. 명사
93. 동사, 형용사
94. 관형사
95. 수사
96. 부사, 명사
97. 동사, 동사
98. 형용사
99. O  
해설 의존 명사이다.
100. X  
해설 접미사이다.
101. 관형사
102. 긴  
해설 '길다'는 형용사이다.
103. 관형사
104. 부사, 조사
105. 동사
106. 명사
107. 관형사
108. 형용사
109. 형용사
110. 관형사

2 실전 문제

1	2	3	4	5	6	7	8	9	10
③	⑤	⑤	④	③	④	④	②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①	②	③	③	③	①	③	②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②	⑤	④	③	②	③	②	①	①	①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⑤	⑤	④	④	④	③	⑤	④	②	④
41	42	43	44	45					
②	⑤	③	①	②					

1. ③

[해설] '문장 안에서 수식의 기능을 하는 단어'는 관형사이다. '두'는 '팔'을 수식하므로 관형사가 맞지만 '하나를'의 '하나'는 뒤에 조사가 붙었으므로 수사이다.

[오답 풀이]

- ① '도'와 '만'은 조사로, 조사는 '이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속한다.
- ② '이루었다'와 '그린'은 동사로, 동사는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 속한다.
- ④ '나무'와 '꽃'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명사)이다.
- ⑤ '넓게'와 '희미하다'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형용사)이다.

2. ⑤

[해설] 목적격 조사가 '책을 열권을'과 같이 두 번 나오더라도 '책 열권을'처럼 생략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받침이 없는 단어 위에서는 '를' 대신 '리'이 오기도 한다. 따라서 '누구를', '누굴'과 같이 쓸 수 있다.
- ② 보조사 '는'은 목적격 조사 '를' 대신 쓰일 수 있다.
- ③ '너만을'을 보면 체언 '너'와 목적격 조사 '을' 사이에 보조사 '만'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영수와 만났다'를 '영수를 만났다'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와'는 목적격 조사 '를'과 바뀌서 쓸 수 있다.

3. ⑤

[해설] '싶다'는 항상 보조용언으로만 쓰인다. '봄에는 제주도로 여행을 싶다'는 문장은 어색하기 때문이다. '싶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욕구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이다.

[오답 풀이]

- ① '보자'에는 실제 '눈으로 감상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 ② '일어나다'에는 실제 '잠에서 깨어나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 ③ '왔다'에는 실제 '화자가 있는 쪽으로 위치를 옮기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 ④ '가자'에는 실제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